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1.17(금) ~ 2025.1.23(목)

제공일시 2025 1 3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1.17(금) ~ 2025.1.23(목)

제공일시 2025 1 3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美日 AI합작사 지원 트럼프... 빅테크에 밀리는 韓 AI, 규제까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인공지능(AI)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을 폐기한 뒤,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본을 유치하며 글로벌 AI 시장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넓히고 1위 자리를 확고히 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 2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합작해 설립한 '스타게이트'가 향후 4년 동안 최대 5000억달러(약 718조원)를 AI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스타게이트는 텍사스주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미국은 새로운 AI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

[\(이데일리 2025.1.22\)](#)

2. 독·프 압박에 트럼프 재집권까지... EU, 'ESG 공시 규제' 완화할 듯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가운데, ESG 공시 규제에 앞장서 왔던 유럽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 유럽연합(EU)이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압박으로 ESG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정부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완화하는 방안을 새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이내 완화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수 있다고 보도함

[\(에너지경제 2025.1.22\)](#)

3. "중국보다 못하다니" 부글부글... 일본 결국 '초강수' 꺼냈다

- 반도체산업 부활을 노리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이어 설계도 지원함. 3년간 1600억엔(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함. 설계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제조와 함께 '두 바퀴'를 굴려 미국과 중국을 추격한다는 전략임
-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 본예산안에 반도체 설계 지원금 1600억엔(약 1조5000억원)을 편성함
- 지원 부문은 AI와 데이터센터, 통신 기지국, 자율주행차, 요양 로봇 등 최첨단 반도체를 설계하기 위한 R&D임

[\(한국경제 2025.1.16\)](#)

국내 정책

1. “美신정부 출범에 수출 악영향”… 정부, 수출금융 360조원 공급

-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함
-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20일 김동준 부단장 주재로 수출금융협의회(Fin-eX)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함
-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환리스크 대응과 수출 다변화 지원을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지난해 1조2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함
- 해외 전시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 수출 지원 사업도 지난해 2조1000억원에서 올해 2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임

[\(이투데이 2025.1.20\)](#)

2. 페트병, 플라스틱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

- 정부가 올해 콜라·사이다·생수 페트(PET)병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10% 사용을 의무화함.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자원화하는 세계적 수준의 폐플라스틱 물리적·화학적 재활용 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임
- 환경부는 다음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를 개정해 재활용지정사업자 범위를 페트(PET) 원료 생산자에서 페트병 음료 최종생산자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힘
- 환경부는 우선,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활용지정사업자’ 범위를 변경함. 이어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할 계획임

[\(전자신문 2025.1.19\)](#)

3. 김병환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산은 별도기금 조성”

- 반도체·바이오·배터리·에너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됨
- 정부 보증채로 자금을 조달해 KDB산업은행이 기금을 운영하며, 기금과 첨단기업이 합작으로 SPC(특수목적회사)에 투자하는 방식 등이 논의됨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첨단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은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며 “1분기 중 산경장(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를 하겠다”고 밝힘

[\(머니투데이 2025.1.22\)](#)

글로벌 기업

1. 구리 확보전에... 리오틀토·글렌코어 M&A 재점화

- 글로벌 대형 광산 기업 리오틀토와 글렌코어가 합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광물로 꼽히는 구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관련 업체들의 인수합병(M&A)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옴
-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리오틀토와 글렌코어가 합병 논의를 시작함. 다만,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최종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설명임

[\(서울경제 2025.1.17\)](#)

2. BYD, 인니 전기차 공장 연내 완공... 연 15만대 생산

-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 비야디(BYD)가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제조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현지 법인장이 밝힘
- BYD가 10억달러(약 1조4천360억원)를 투자해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수방에 건설 중인 이 공장은 연간 15만대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게 됨

[\(연합뉴스 2025.1.21\)](#)

3. 스웨덴 철강기업 SSAB, 美녹색철강 공장 설립 백지화

- 스웨덴 철강 제조업체 사브(SSAB)가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추진하던 녹색철강 공장 설립 프로젝트를 전격 중단함. 사브는 미 에너지부(DOE)의 청정에너지실증국이 지급하는 사업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함
- 사브는 지원금 협상에서 물러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 다만, 카나리미디어는 14일(현지시각)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녹색수소 시장이 불안정하고, 정권 교체기에 에너지부와의 파트너십은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임팩트온 2025.1.19\)](#)

4. 마쯔다, 전기차 시대를 위해 일본 내 배터리 생산 거점 마련

-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 마쯔다(Mazda)가 브랜드의 전기차 생산의 안정성을 더할 수 있도록 배터리 공장을 새롭게 건설할 예정이라 밝힘
- 업계에 따르면, 마쯔다는 일본의 배터리 제조사 중 하나인 파나소닉을 파트너로 낙점하고, 일본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공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마쯔다의 새로운 배터리 공장은 연간 생산 용량이 10GWh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2025.1.22\)](#)

국내 기업

1. 10년 '슈퍼 잭팟' 터진다... HD현대일렉 '4000억' 파격 투자

- HD현대일렉트릭이 내년 초까지 4000억원을 투입해 미국 앨라배마와 울산 변압기 공장 생산량을 30% 끌어올림. 갈수록 늘어나는 미국의 전력기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임
- 19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은 울산공장을 증설해 초고압 변압기 생산량을 연 300개에서 360개로 확대하기로 함
- 미국 앨라배마 공장 생산 능력도 연 100개에서 최대 150개로 증설함
- 내년 초 두 공장 증설이 끝나면 HD현대일렉트릭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량은 연 400개에서 510개 안팎으로 27.5% 늘어남

[\(한국경제 2025.1.19\)](#)

2. GS건설, 인도 아삼주에 청정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

- GS건설이 인도 아삼주에 청정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논의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나섬
- GS건설이 인도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도 정부의 청정에너지 육성 정책과 맞물려 향후 추가 협력 가능성이 주목됨. 양측은 아삼주에 청정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더구루 2025.1.22\)](#)

3. 1억달러 美보조금 추가... SKC, 유리기판 효자 역할 톡톡

- SKC의 반도체 유리기판 계열사 애플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1억달러(약 1450억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수령함. SKC의 주력사업이었던 동박 사업이 전기차 캐즘으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리기판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
-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을 연구·생산하는 SKC 애플릭스에 1억달러(약 1450억원)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밝힘

[\(이데일리 2025.1.20\)](#)

4. 고려아연·LG화학 합작사, 전구체 양산 돌입

- 고려아연은 LG화학과 설립한 한국전구체주식회사(KPC)가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 양산체제에 본격 돌입했다고 21일 밝힘
- 한국전구체주식회사는 고려아연이 자회사 컴코를 통해 LG화학과 약 2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임
- 올해 상반기 첫 양산과 함께 생산능력을 점진적으로 늘려 하반기부터는 최대 생산 체제로 가동하겠다는 계획임

[\(데일리안 2025.1.21\)](#)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1.17(금) ~ 2025.1.23(목)

제공일시 2025 1 3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美트럼프, 바이든의 전기차 전환목표 백지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취임사에서 바이든 전 정부가 수립한 '2030년 전기차 전환 목표'를 공식 철회했음. 그는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여 자동차 산업과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전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무탄소 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전 정부의 행정명령을 백지화했음
- 그는 대선 캠페인 기간 "바이든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석유 생산 확대와 함께 풍력·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도 축소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는 불공정한 보조금과 시장 왜곡을 없애겠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지급되던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음
-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IRA로 할당된 50억달러(약 7조원) 규모의 충전소 구축 기금 중 미집행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 각 주가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는 권한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보호청(EPA)이 주정부에 부여한 배기가스 규제 권한은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제한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음
-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2월 EPA로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허가받았음. '어드밴스드 클린카 II(Advanced Clean Cars II, ACC II)' 법은 2035년까지 이어져 판매되는 신차의 최소 80%가 전기차이고, 최대 20%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도록 함. 11개 주가 이 규제를 받아들인 상황임
-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EPA의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규정도 재검토하도록 지시할 전망이다. EPA는 지난 9월 2016년 기준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49%로 줄이고,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목표를 35%로 잡았음

[\(임팩트온 2025.1.22\)](#)